

# '찬밥 신세' 생닭 1.6kg 2400원...전년보다 29% 폭락

음초러든 소비심리로 닭고기 소비가 줄면서 생닭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12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육계(1.6kg 이상) 시세는 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00원)보다 29.1%나 하락했다.

대형마트인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지난해 2월 8000원에 판매됐던 볶음용 생닭(1kg)이 현재 4980원에 팔리면서 37.7%나 하락했다. 또 백색용 생닭 가격도 6980원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15%가량 떨어졌다.

생닭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닭고기 소비가 줄면서 생닭 매출 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급락했던 닭고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10만8639t)이 9.8% 증가한데다 설 명절 특수까지 놓치면서 재고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양계농가들이 작년 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출하량이 줄자 병아리 입식수를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7% 가량 늘리는데다 명절 이후 닭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비수기

까지 겹쳐 수요가 크게 줄어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준규 한국양계협회 광주전남지회원은 "2월은 설 명절 이후 소비가 줄고 닭고기 소비 호재가 없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여서 산지시세는 약세권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과 등으로 출하가 줄면서 몇일 사이 닭고기 값이 소폭 올랐지만 닭고기 재고량 증가와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으로 인해 당분간 양계농가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왕의 귀환' 한우 평균 경매가 1만5650원...두달새 13% 올라

최고기 수요 증가로 산지 소 값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우 값이 1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의 한우(거세·1+등급) 평균 경매가격은 10일 현재 1만5650원으로 지난해 12월 1만3798원보다 13.4% 올랐다. 이는 작년 2월 평균 가격(1만5029원)보다 4.1% 상승한 수치다.

산지 소값도 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수소(600kg) 산지가격은 8일 현재 523만8000원으로 지난해 평

균보다 2.4%(12만3000원)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2.8% 올랐다.

한우 가격은 작년 1월 평균 556만1000원에서 5월 450만4000원으로 대폭 하락한 뒤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설을 전후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한우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다 명절 대목과 졸업시즌이 이어지면서 한우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설 한우구이세트 등 육류상품에 따르면 한우 수소(600kg) 산지가격은 8일 현재 523만8000원으로 지난해 평

지만 전문가들은 소값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수요가 늘어난데다 한우 감축으로 인해 쇠고기 공급이 늘어나면 소값이 하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수입 쇠고기 소비량은 28만9400t으로 국산 쇠고기 소비량보다 7만3000t 많았다. 전체 쇠고기 소비량 중 수입 쇠고기의 비중은 57.2%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농식품부는 2년간 한우 암소 20만마리를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 대형마트·SSM 온라인 영토확장

### 제약 적고 비용 낮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온라인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 매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규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각 업체는 인터넷 판로 확장에 더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장의 이용자 수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이마트는 2010년 이마트몰을 개편하고 고서 인터넷 판매가 활기를 찾았다고 같은 해 3분기에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던 이마트몰 매출이 작년 4분기에 2.7%가 됐다.

오프라인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이 기간 매출액이 386억원에서 972억

으로 증가했다. 작년 온라인 매출액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라 가볍게 여길 수준이 아니다.

홈플러스 온라인 매장의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02년에는 전체 매출의 0.1%(12억원)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1.5%(1600억원)로 커졌다.

롯데마트몰은 2009년에 0.6%였는데 작년엔 1.7%가 되면서 온라인 매출 1200억원을 달성했다.

롯데슈퍼의 인터넷관인 E슈퍼의 매출은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롯데슈퍼 전체 매출의 1.76%까지 성장해 현재는 월 25억~30억원 수준이다.

GS아이스퍼는 2007년에 GS슈퍼마켓 전체 매출에 1.8% 기여했지만 작년엔 2.3%로 늘어 온라인의 비중으로 보면 업계 최고다. /연합뉴스



"태블릿 PC 줄꺼지?"

남 31%

밸런타인데이 선물 당신의 속마음은?



女 25%

"지갑·초콜릿 받아"

남녀가 밸런타인데이(2월14일)에 주고받고 싶은 선물의 종류와 가격이 판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몰을 통해 20~40대 남녀 고객 820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 선물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이 받고 싶은 선물로 31%가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를 꼽았다.

이에 비해 여성이 주고싶은 선물로 25%가 지갑 또는 머니클립(현금 등만 끼우는 간지 지갑)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남성들은 또 아이폰 도킹 오디오(22%), 옷·신발(17%), 현금 또는 상품권(15%), 시계(12%) 등 비교적 비싸고 실용적인 선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밸런타인데이 선물인 초콜릿은 남성이 받기를 원하는 주요 선물군에 아예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갑 다음으로 초콜릿(22%), 스마트폰 케이스(19%), 옷·신발(15%), 액세서리(열쇠고리 등) 13% 등 주로 값싼 선물을 주기를 원했다.

그런 만큼 밸런타인데이 때 여성들이 생각하는 선물 비용은 화이트데이(3월14일)때 남성들이 책정한 선물 비용보다 낮았다.

밸런타인데이 때 여성들은 선물 비용으로 10만~20만원이 35%로 가장 많았고 20만~30만원 26%, 5~10만원 18%, 30만~50만원 13% 등이었다.

남성은 20만~30만원이 32%로 비중이 컸다. 이어 30만~50만원 25%, 10만~20만원 19%, 5만~10만원 17% 등의 순이었다.

### 주간 증시 포커스

## IT·화학·정유·건설·기계 우선 관심

KOSPI는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이틀만에 다시 1,900선으로 복귀하기는 했지만, 오렌만에 2,000선을 즐겼다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꾸준히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지켜가면서 연초 이후의 흐름을 이어갔다.

음선만기 부담을 견뎌냈지만 2,000선에서의 심리적 저항과 경제매물 부담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완화 및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당분간 외부변수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주의 상승추세가 크게 흔들리는 양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을 위한 재정 긴축안에 합의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ECB의 2차 LTRO 시행으로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완화될 경우 유럽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과정도 더욱 속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과정에서 글로벌 경기 및 기업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예상치를 상회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로 다소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기업들의 부진한 4/4분기 실적으로 인해 2012년 실적 모멘텀 개선세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개선세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부담을 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주 주식시장은 마디 지수인 2,000선 전후에서의 매매공방 속에 한차례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00선 전후의 지수 부담으로 인해 상승탄력이 다소 둔화될 경우 업종 및 종목별 수익률 갭 매우가 차원의 순환매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최근 대형주의 상승흐름이 가파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중형주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IT, 화학, 정유, 건설, 기계 등 2/4분기까지 실적개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우선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IT는 연초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3월 이후 실적 발표 시즌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 다문화이주민 문화체험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은 11일 동부소방서와 연계해 다문화이주민 대상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금융공공기관 대출·보증 확대

올해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작년보다 10% 안팎으로 확대한다.

국내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투자 비중도 작년보다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책금융공사 등 7개 금융 공공기관들이 올해 61조 1000억원의 대출과 111조5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액은 작년 55조7000억원에서 9.5%(5조3000억원)이 늘고, 보증은 100조7000억원에서 10.7%(10조8000억원)이 확대된 것이다. 대출은 수출입은행이 작년보다 4조원, 정책금융공사는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는 1조원을 각각 작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전

세와 매매중도금 개인보증 등 1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고용창출기업 보증 등 1조원을 작년보다 늘린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투자 비중도 작년보다 늘었다. 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관리하는 주요 공공기관 27개의 투자집행목표는 1분기 27%, 상반기 5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9%포인트, 1.0%포인트 늘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액 목표는 1분기 14조4000억원, 상반기 30조5000억원이다. /연합뉴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 객실 -**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60-1번지  
Tel.227-8500/Fax.227-2159

## 고객 감사 페스티벌

행사기간: 2012년 1월 2일~2월 29일

**행사1.** 복합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27인치 LG LED TV(모니터)를 선물합니다.  
**행사2.** 행사기간 내 신도리코 제품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행사3.** 행사기간 내 신도리코 A3 복합기 보상 판매  
( 행사 모델 : 신도리코 D400/401/402, N600/601/602, DGwox4300 )

D400/401/402      D600/601/602      DGwox4300

신도리코 광주지점 샵상사 전화문의 (062)511-8633~4